

# Daily Auto Check

2020. 9.18(Fri)



##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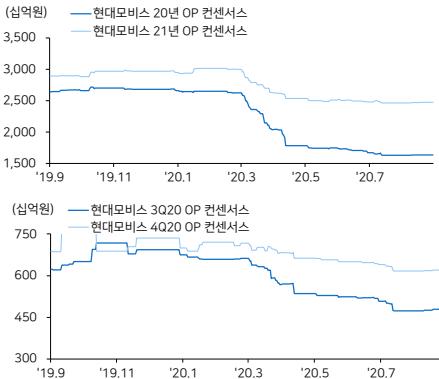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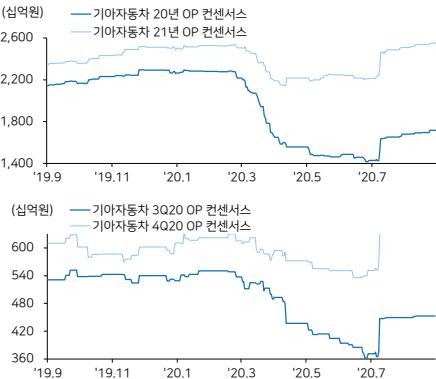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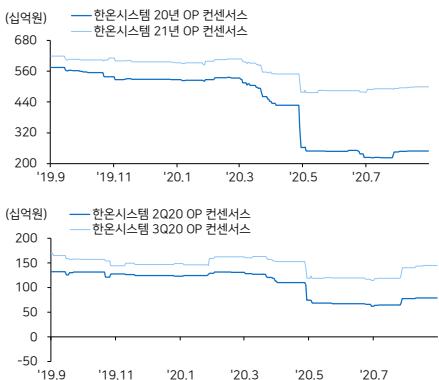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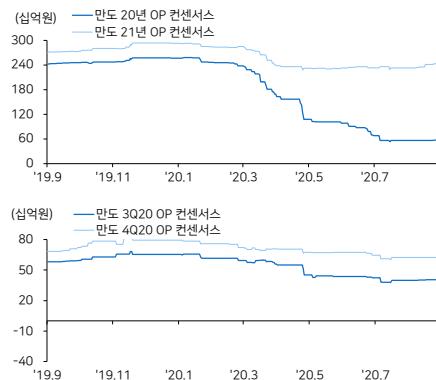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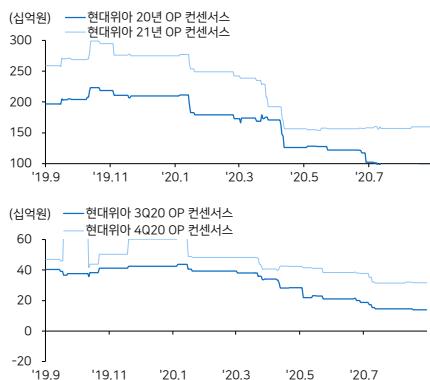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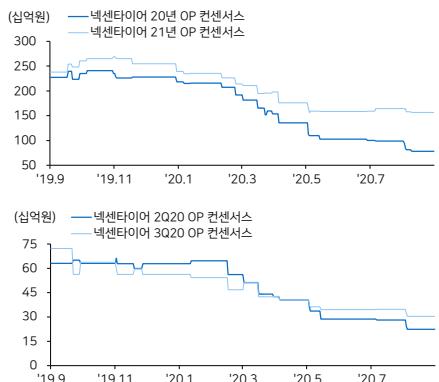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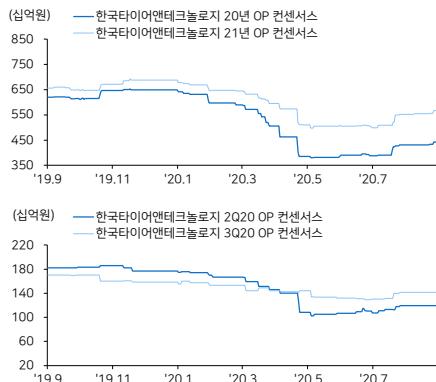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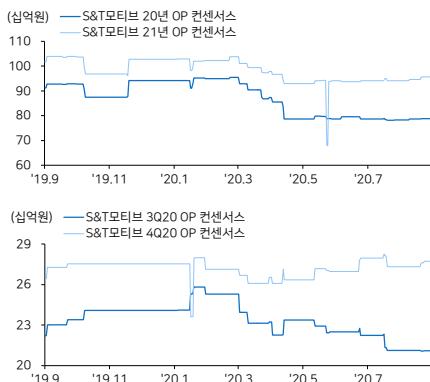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amp;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디올루트 '현대차 SUV 사전계약 신기록, 첫날 1만대 돌파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가 파격적인 디자인과 성능으로 5년만에 새롭게 선보인 신형 투싼이 사전계약 첫날 1만대를 돌파. 현대차는 사전계약에 들어간 신형 투싼의 첫 날 계약대수가 1만842대를 기록. 현대차 SUV 최초로 사전 계약 첫 날 실적 1만대를 넘어섰다.

<https://bit.ly/3mztfci>

## 현대차의 '수소경제' 콘그림... 로템·제철도 역량 집중 (파이낸셜뉴스)

현대로템,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수소경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 중. 세계 첫 수소전기차 양산체계를 구축한 현대차가 발전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로템은 10월부터 수소 충전 인프라 사업을 시작했다.

<https://bit.ly/3iHAZqr>

## 한국타이어, 라우펜 상용차용 타이어 남미 출격 (더그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라우펜 브랜드의 상용차 타이어 라인업을 남미에 출시.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라우펜 브랜드의 9종의 상용차용 타이어를 클럽비아와 에피드로에서 판매한다.

<https://bit.ly/3ccQV11>

## 테슬라는 빼고.. 자율주행차 보험 나온다 (이데일리)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보험상품이 이달 말부터 쏟아질 전망. 일부 보험회사에서 제한적으로 판매되던 전용 보험상품이 대부분의 보험사로 확대됨.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형태의 구조가 될 전망. 다만 금융당국은 대상은 일단 법인 소유 상용 자동차로 한정.

<https://bit.ly/2Fm70Z4>

## 기아차 소하리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최소 10명 발생 (연합뉴스)

기아차 소하리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7일 오전 9시 현재 최소 10명 발생. 한편, 기아차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6천 여명이 근무하는 소하리 공장을 중단한 가운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ttps://bit.ly/32ExFv>

## 현대차 웨어러블 로봇 '벡스' IDEA 2020에서 금상 (연합뉴스)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 '45'와 웨어러블 로봇 '벡스' 등으로 세계적인 디자인상 'IDEA 2020'에서 총 5개의상을 받았다. 현대차는 금상 1개, 동상 1개, 파이널리스트 1개 등 총 3개를 수상하고, 제네시스는 2개 부문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됨.

<https://bit.ly/3mv1Rx>

## 넥센타이어, 재고자산 급증.. 비중증가율 업계 '톱' (데일리뉴스)

타이어업계의 재고자산이 폭포로 증가. 특히 넥센타이어의 재고자산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자산 가운데 11.3%가 재고자산으로 집계됨.

<https://bit.ly/2E9v0FB>

## 중국에 1위 자리 내준 배터리…2025년엔 美·유럽에도 밀린다 (에너지경제)

중국이 세계 리튬이온배터리 시장의 공급망 순위에서 일본과 한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전기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경우 배터리 시장에서의 한국의 입지가 앞으로 계속 좁아질 것이라 전망도 제기됨.

<https://bit.ly/3kvb5Xk>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